

경북지역 종가의 혼례문화 사례연구*

A Case Study on the Wedding Culture of the Main Family in the Gyeongbuk Area

이향숙(Hyang Sook Lee) · 주영애(Young Ae Ju)

Department of Wedding Industry, Dong-Pusan College
Departmen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surveyed features of weddings in the main family by selecting 10 families in which the grandnephew and grandnephew's wife dwell in the head house, have a shrine, and hold a memorial service for Bulcheonwi (不遷位). A case survey through in-depth interview was carried out from April 9, to October 8, 2011. It surveyed the contents and the wedding artifacts in Uihon (議婚), Napchae (納采), Nappye (納幣), Daerye (大禮), Hyeongugorye (見舅姑禮), which are the procedures of traditional wedding that have been kept in the wedding ceremony of the main family. As a result, in deciding on marriage, the marriage was formed on the basis of similar Gagyeok (家格) and on ancestor's common scholastic mantle or origin. As for wedding furnishings, wedding presents, and wedding gifts, 9 out of 10 families were indicated to give and take weakly. Also, 6 out of 10 families held a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in the yard of the bride's house. Hyeongugorye (見舅姑禮) was indicated to be held by all of the 10 families. A continuous effort in academic circles and industries is demanded for preserving the living culture of the main family, which proceeds with following the traditional elements even amid a rapidly-changing historical flow as today.

주제어(Keywords) : 종가(Main family), 종가혼례(Wedding of the main family), 혼례문화(Wedding culture)

I. 서론

혼례(婚禮)는 인륜지대사(人倫之大事)인 일생의례이다. 예로부터 전통혼례에서는 혼례의 규범과 질서를 중시하고 지켜나가도록 해 왔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자본주의와 개인주의적 가치관, 남녀평등 사상 등의 영향으로 혼례의 의미나 의례형식과 절차도 과거와는 다르게 크게 변화되었다. 특히 혼례의 무구범, 물질 만능주의의 팽배로 인한 외형적 허례의식, 전통 혼인행례 의미의 왜곡, 행례의 무의식적 서구화 추

종 등[8]이 나타나고 있다. 민족의 정체성은 일생의례를 통해서 계승될 수 있음을 볼 때, 가정의례의 하나인 혼례는 그 근간이 된다 하겠다.

한국의 혼례문화는 오랜 역사 속에서 면면히 이어져 온 생활문화의 발자취라고 할 수 있다. 사회가 변동되면서 그 형식과 절차 면에서 불필요한 것으로 인식되어 많은 부분이 변형되기도 하고 경시되기도 했지만 면면이 이어져 온 우리의 생활문화임에 틀림없고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재발견되어야 하며 계승, 발전되어 나가야 한다. 오늘날 우리의 전통

Corresponding Author : Young Ae Ju, Department of Living Culture & Consumer Science, Sungshin Women's University, Woonjung Green Campus 147, Mia-dong, Gangbuk-gu, Seoul, 142-732, Korea Tel: +82-2-920-7481 Fax: +82-2-920-7413 E-mail: jyoungae@sungshin.ac.kr

* 본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

* 본 논문은 2012년 대한가정학회 제65차 춘계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을 수정 보완함.

혼례 의미와 절차 및 관행을 되짚어보고, 정체성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서구화의 혼란 가운데서도 지켜온 혼례문화의 맥을 찾아가는 연구과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그럼으로써 전통혼례문화의 생활문화사적 가치를 찾아 계승시키고 기록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통혼례문화 체험과정을 증언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고령화되어 가고 있어, 연구과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한국사회 혼례문화 전반에 관한 흐름을 경북지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경북지역에는 “중가 하나 끼고 돌아가지 않는 골이 없다.” 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수많은 중가가 산재해 있는 곳이며 일제 강점기에 실시된 촌락보고서 『조선의 취락(朝鮮의 聚落)』에 따르면 전국의 동성마을 15,000개 중에서 경상북도가 1,901개(p. 196)[18]로 나타나고 있으며, 2003년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 기초학문연구단이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현재 경북지역에는 200개 이상의 크고 작은 중가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중가는 종손을 중심으로 그 지역의 생활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전통문화를 수호하는 집단이다. 따라서 경북지역은 여타지역에 비해 박제화(剝製化)되지 않고 일상적 삶을 구성하고 있으며 근대화·도시화의 영향으로 크고 작은 변화는 겪어 왔지만 지금도 여전히 같은 혈통을 가진 사람들이 모듬살이를 이루고 있다. 또한 보물과 문화재로 지정된 중가에는 ‘봉제사 집민객’이라는 본분을 다하며 조상제사를 지내고 낫선 손님들을 반가이 맞이하면서 오랜 전통을 이어 내려오고 있다(p. 225)[18]. 따라서 경북지역은 생활문화사적 측면에서 산업화, 근대화의 속도가 느리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문화를 가장 잘 간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의 중가를 선정하여 사례조사하였다. 과거에는 중가를 중심으로 가문의 부와 명예, 그리고 각종 행사가 집중되었다. 따라서 중가를 중심으로 일상생활의 문화가 유지되고 발달되었으며 주변 마을의 의·식·주 및 가정의례의 모범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특히 혼례문화는 종손과 중부를 중심으로 대를 이어 전승되면서 문중이나 주변 사람들의 혼례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중가가 위치했던 지역이나 마을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기호로 작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북지역의 중가를 중심으로 하여 전통혼례문화를 사례조사함으로써 잊혀져 가는 생활문화의 발자취를 기록하여, 혼례문화의 계승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생활문화사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II. 선행연구고찰

1. 전통혼례의 형식과 절차

혼례는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며 중요한 행사로서 큰 뜻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대자연의 섭리에 순응하는 일이며, 이러한 섭리에 따라 자연스럽게 짝을 찾고 인정에 합하는 것이다. 예부터 혼례는 부부관계의 시작이자 곧 사회 구성단위의 출발점이 되므로 혼례절차 역시 그 의미와 절차를 신성시하여 거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반친영제(신부 측을 중심으로 한 입장제와 신랑 측을 중심으로 한 친영제를 보완한 형태)와 관행적 혼례절차(의혼, 납채, 연길, 납폐, 대례, 현구고례의 6단계)를 전통혼례의 기준으로 삼고 Ahn, Hwang, Ju, Kim, Lee 외, Park의 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선례, 본례, 후례와 같은 전통혼례절차의 과정을 바탕으로 의혼(議婚), 납채(納采), 납폐(納幣), 대례(大禮), 현구고례(見舅姑禮)의 5단계로 혼례문화의 변화를 논의하고자 한다[1, 8, 13, 15, 23, 29].

1) 의혼(議婚)

의혼(議婚)이란 배우자를 선택하는 과정으로 신랑 집과 신부 집이 서로 혼사(婚事)를 의논하는 절차이다. 남녀가 혼인할 연령이 되면 중매인을 통해 혼담이 오고가게 되는데, 『주례(周禮)』에 의하면 이 때 혼인을 결정하는 주체는 대개 신랑 신부의 의견 보다는 양가 집안의 부모들에 의한 것이었다[28]. 주자학의 도입 이후 유교적 예 의식에 의해 조선시대는 부계사회로 변모하여 가부장적 가족질서 체계를 형성하게 되었기 때문에 배우자의 선택 또한 부모와 중매인을 중심으로 한 중매혼이 성행하였다. 중매인은 양가의 집안을 잘 알거나 한쪽 집안을 잘 아는 사람으로 보통 중신(중신·중신)애미라 불렸다(p. 130)[14]. 의혼이 오갈 때는 먼저 성씨(姓氏)를 살펴보았으며 혼인 결정전에 궁합을 보기도 하였다.

2) 납채(納采)

납채(納采)는 양가 사이에 의혼(議婚)이 이루어진 후 신랑 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인을 청하는 서신을 보내고 신부집에서는 신랑집으로 그에 대한 답신을 보내는 예(禮)를 행하는 것이다[2]. 이 때 납채(納采)의 징표로 ‘사주(四柱)단지’를 보내는데, 사성(四星), 주단(柱單), 사주(四柱)라고도 하며 신랑의 생년, 월, 일, 시를 쓴 것을 말한다. 신부 측에서는 사주단자가 도착하면 대개 신부의 부모가 마루에 상을 놓게 된다. 지방에 따라서는 상 위에 정화수를 떠 놓기도 하였다(p. 120)[12]. 사주를 받은 신부 집에서는 신부의 생년, 월, 일, 시

1) 『禮記』, 郊特牲 第十一, 天地合而后萬物興焉 夫昏禮 萬世之始也 取於異姓所以附厚別也.

Table 1.
A prior research on the entire traditional wedding procedure

	Park Hye-in (Year in 1991)	Hwang Gyeong-ae (Year in 1994)	Lee Gil-pyo · Choe Bae-yeong (Year in 2000)	Kim In-ok (Year in 2007)	Ahn Hye-suk (Year in 2010)	Ju Yeong-ae (Year in 2010)
Sun-rye (先禮: before the ceremony)	Uihon (議婚) Saseong (四星) Taekil (擇日: setting the date) Ham (函: a box of wedding gifts sent by a bridegroom to his bride before the wedding)	Uihon (議婚) Letter of marriage proposal/Saju (四 柱: destiny) Letter of marriage approval/Taekil (擇日: setting the date) Ham (函)	Marriage proposal by matchmaking Saju (四柱: destiny)/ Letter of marriage proposal Yeongil (涓吉: choosing a lucky day)/Letter of marriage approval Ham (函)	Marriage talks Saju (四柱: destiny) Taekil (擇日: setting the date) Nappye (納幣: sending blue and red silks to the bride's house)	Saju (四柱: destiny) Gunghap (宮合: marital compatibility) Taekil (擇日: setting the date) Ham (函) Wedding presents A meeting between the families of the bride and the bridegroom (Engagement)	Uihon (議婚) Napchae (納采: wedding presents sent from the bridegroom's house to the bride's house) Nappye (納幣: sending blue and red silks to the bride's house)
Bon-rye (本禮: ceremony)	Bridegroom's first trip to the a bride's family Jeonan (奠雁) Gyobae (交拜) Hapgeun (合卺)	Chohaeng (初行: first trip) Jeonan (奠雁) Gyobae (交拜) Hapgeun (合卺)	Jeonan (奠雁) Gyobae (交拜) Hapgeun (合卺)	Wedding ceremony	Wedding ceremony	Jeonan (奠雁) Gyobae (交拜) Hapgeun (合卺)
Hu-rye (後禮: after the ceremony)	Bridegroom's Jaechaeng (再行: bridegroom's first visit to his bride's home after the wedding ceremony) Bride's Shinhaeng (新行) Pyebaek (幣 帛: traditional ceremony to pay respect to the bridegroom's family by the newly-wedded couple right after their wedding) Having an audience with ancestral shrine Near relative	First marriage night Greeting to parents-in-law Ugwi (于歸) Hyeongugorye (見舅姑禮) Sadang-Pyebaek (祠堂幣帛) Near relative	Taking off bridegroom's Gwanrye (冠禮) Pyebaek (幣帛) Sadang-Pyebaek (祠堂幣帛) Taking off bride's Gwanrye (冠禮) Haprye (合禮) Shinhaeng (新行)	Ugwi (于歸) Hyeongugorye (見舅姑禮)	Hyeongugorye (見舅姑禮) Honeymoon	Ugwi (于歸) Hyeongugorye (見舅姑禮)

를 참고하여 '살' 을 피해 혼인 날짜를 결정하여 허혼서와 함께 신랑 측에 전하는데, 이를 연길(涓吉)이라고 한다. 이때 택일의 결정권은 절대적으로 신부 측에 있다. 연길을 보낼 때 신랑의 옷 치수를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의양 또는 의제라고 하며 이것은 혼례가 끝난 후 신랑이 같이 입을 새 옷을 준비하는 절차이다.

3) 납폐(納幣)

납폐(納幣)는 허혼이 이루어진 후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혼서(婚書)인 서신과 폐백인 채단을 보내고, 신부집에서는 그것을 받고 답신을 보내는 절차이다[2]. 이 때 혼서(婚書)는 영애(令愛)를 아내로 주심을 허락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며, 선인(先人)의 예(禮)로 삼가 납폐의 의식을 행한다는 뜻을 지

니고 있다[23]. 또한 납폐물품은 청홍채단, 혼수(婚需), 혼서(婚書), 물목(物目) 등이 있다. 함안에는 주머니에 싸가 있는 목화 몇 송이와 콩, 팥 몇 낱알을 넣어 주머니에 끈을 맨다. 목화는 목화처럼 살림이 퍼지라는 의미이고, 콩은 아들, 팥은 딸을 상징하였다. 혼인을 성스럽고 복된 것이라 여겼기 때문에 깨끗하고 길(吉)한 것을 취해야 한다고 하여 함도 대개는 하루의 시작이자 가장 신성한 시간인 '혼인 전 날 자정'에 보냈다[22]. 『사례편람』에서는 납폐는 적어도 두 가지 이상이어야 하며 많어도 열 가지를 넘어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시대와 가정 형편에 따라서 함(函)에 넣는 내용물도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부유한 가정에서는 화장품, 은비녀, 은반지 등도 함께 보내기도 하였다(p. 148)[14]. 함이 들어오는 날 신부 집에서는 봉치떡을 준비하고 함 받을 자리를 마련한다. 돛자리를 깔고, 그 위에 소반을 놓고, 청홍 겹보자기를 덮은 뒤 그 위에 봉치떡을 올리고 홍색 보자기로 덮어 놓는다. 신랑 일행이 도착해서 혼서지를 전해 올리면 신부의 아버지가 혼서지를 읽고 봉치떡 위에 함을 올려놓는다.

4) 대례(大禮)

대례(大禮)는 본례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사람이 평생을 사는데 있어서 가장 큰 의례절차라는 의미가 있다. 이 대례는 신랑이 신부 집에서 혼례를 치루고 신부를 맞이오는 모든 절차를 의미한다[13]. 대례는 전안례, 교배례, 합근례의 순으로 행해진다.

전안례는 신랑이 기력아버와 함께 신부집에 도착하여 신부의 어머니에게 나무기러기를 드리는 예이다. 기러기는 백년해로의 상징이었다. 그 서약의 징표로서 신부의 어머니에게 목안을 주면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여 교배례를 치른다. 교배례는 초례청에서 신랑과 신부가 처음으로 상대방을 마주하고 절을 하는 절차이며 이로써 두 사람은 부부로서 백년해로를 서약하게 된다.

합근례는 근배례라고도 하며 술잔과 표주박에 부부가 술을 부어 마시는 의식이다. 하나의 조롱박이 표주박 두 개로 나뉘었지만 다시 합하면 하나가 되는 것처럼 남녀로 따로 태어났지만 일심동체의 부부가 되었음을 나타내는 것이자 부부의 화합을 의미한다.

혼인한 날 저녁에는 신랑 신부가 첫날밤을 지낸 신방에 들어간다. 이 때 '신방을 지킨다' 하여 방 밖에서 창호지 문구멍을 뚫어 엿보기도 하나 촛불을 끄면 모두 물러간다. 첫날밤을 지낸 다음 날 신랑은 장인, 장모와 처가의 근친에게 인사를 드린다(p. 125)[12].

5) 현구고례(見舅姑禮)

현구고례는 혼례의 마지막 단계로서 신부와 신랑이 부부

라는 새로운 지위를 얻고 신랑의 가족들에게 첫 인사를 드리는 절차이다. 현구고례를 올리기 전 신랑 신부는 우귀를 행하는데 우귀란 혼례를 치른 다음 날 신랑과 신부가 같이 본가로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우귀는 지역에 따라 다른데 이틀을 머물고 삼일째 되는 날에 본가로 들어가는 삼일대반(三日對飯), 해묵이, 달묵이 등으로 나타나기도 한다(p. 26)[29].

우귀 전 신부 집에서는 시부모님께 드릴 폐백을 마련하며, 폐백은 일반적으로 밤, 대추, 육포, 닭을 장만한다. 이 때 신부 집에서 장만해 온 술, 닭, 밤, 대추 등을 차려놓고 시부모부터 시작하여 시조부모, 시숙부, 시고모 순으로 차례로 큰절을 하고 술을 올린다[28]. 시아버지에게는 대추폐백을, 시어머니에게는 고기폐백을 올린다.

폐백 후 다음 날 아침 새 신부를 위해서 신랑 집에서는 큰상을 마련해 주며, 이는 폐백음식을 마련해 준 사돈댁에 대한 답례의 의미가 담겨있다[13].

2. 종가혼례의 생활문화사적 의미

종가는 한 성씨의 문중에서 종손으로 줄곧 이어온 가문의 큰집을 말한다. 종가는 동(同)조상의 위패를 모신 가묘(家廟), 부조묘(不祧廟)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명절 때마다 종가에서 조상에 대한 차례를 제일 먼저 올리는 곳이었다. 또한 종회의 장소로 이용되었으며 종중과 관련된 문서를 보관하는 곳이었다. 종가는 이와 같이 종중의 모든 행사의 구심체 역할을 하였다. 종가는 가문의 맏이로서 부모·형제의 책임과 역할을 담당하며 그 대표적인 역할 담당자가 바로 종손으로 종가에 살면서 대대로 가문의 장손 역할을 수행하였다. 종손은 종가문화의 주인이고 종손의 등장은 장자상속제의 일반화를 형성하였다. 특히 종손은 묘소를 수호하는 임무를 지니며 묘소 주변에 세거지를 갖추고 조상과 후손으로 연결되는 혈족집단을 족보를 통해 유지 보존시켜 나가기도 한다. 이 때 종가가 종가로서 존재하고 종손이 종손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는 종부의 피나는 노력과 집념이 크게 작용하였다. 봉제사, 접빈객, 종가의 재산관리, 문중의 각종 부조에 문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하는 역할을 종부가 담당하였다[30].

생활문화란 사람이 제한된 일정한 환경에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의·식·주 중심의 일상적으로 반복되는 관습이다. 생활문화는 오랜 기간 동안 같은 자연적 조건이나 사회적 상황, 교육환경 속에서 살아온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다. 우리의 삶속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의식주(衣食住)와 관혼상제(冠婚喪祭) 전통생활문화가 배경에 깔려있으며 그 깊은 저변에 한국적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종가는 전통의 요소가 가장 많이 남아있는 곳으로 유형의 문화자원과 함께 가문을 중심으로 내려 온 가풍과 종가 내력사 같은 무형의

문화자원이 함께 공존하는 대표적인 생활문화자원이다. 특히 가정의례의 하나인 혼례는 각 가문마다 내려오는 전통의 혼례풍속을 알 수 있는 유형의 문화유산이다.

종가가 동족마을에 위치하였고 종가의 혼례풍습이 가문의 잔치, 더 나아가 마을의 잔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종가의 혼례는 마을 전체의 혼례를 관망한다고도 할 수 있다. 종가의 혼례풍습이 종손과 종부, 그리고 차세대 종손과 종부로 이어지면서 대를 이어 전승하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횡적으로 종가의 혼례는 종가가 위치한 동족마을의 문중사람이나 주변 사람들의 혼례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납채 시에 오고가는 청혼서, 허혼서, 사주단지, 택일단지, 납채 시 오고가던 함, 함속의 물품기, 대례시의 흘기, 대례시 신랑·신부가 입는 치마저고리 및 원삼, 족두리, 그리고 사모관대, 폐백시 어른께 올리던 폐백음식, 시어른이 내려주시던 큰상 등 종가마다의 독특한 혼례문화는 대를 이어 전승되고 있다. 이것은 종가의 생활문화가 종가가 위치했던 지역이나 마을의 독특한 특성을 반영하는 문화적 기호로 작용함으로써 오늘날까지 종가의 전통이 유지되어 남아있는 문화적 원천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종가 혼례는 가문의 생활문화를 이끌어 가고 전승하는 역할을 할 뿐 만아니라 문중 또는 주변사람들에게까지 전승되어 온 한국사회 대표적인 유형의 문화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Ⅲ. 연구방법

종가의 혼례문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민속학적 현장조사 방법인 사례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종가의 혼례문화를 사례조사로 선정한 이유는 종가의 종손과 종부가 연세가 있기 때문에 설문을 작성하기가 어렵고 또한 종가 혼례문화에 대해 면접을 통하여 다양하게 살펴보고자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경북지역의 전통적인 혼례문화에 대한 전반적인 행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지역 생활환경의 중심역할을 하였고 의·식·주생활 및 가정의례의 모범이 되고 있는 종가를 중심으로 사례연구를 실시하였다.

1. 연구대상 선정 및 면접시기

연구대상자는 한국국학진흥원의 연구원과 하회마을 보존회 사무장의 면접 내용(2011. 3. 1. 실시)을 바탕으로 선정하였다.

총 23개 종가 중 종손과 종부가 종택에 거주하지 않거나 사례조사가 어려운 17가문을 제외한 10개 가문(의성김씨 귀봉종가, 진성이씨 송재종가, 풍산류씨 서애종가, 광산김씨 퇴촌공파 쌍벽당, 동래정씨 석문파, 안동장씨 경당종가, 안동권씨 충재종가, 전주류씨 정재종가, 영천이씨 농암종가,

경주최씨 사성공파 충의당 종가)의 종손과 종부를 연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자료 수집을 위한 조사는 2011년 3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예비조사를 거쳐 4월 9일부터 6월 4일 사이에 1차 면접이 이루어졌고 자료 보충이 필요한 가문은 9월 24일부터 10월 8일 사이에 2차, 3차 면접이 이루어졌다. 면접 시간은 대체적으로 3~4 시간 정도 소요되었고 면접 장소는 대상자의 집에서 주로 이루어졌다.

2. 면접도구

면접은 구조화된 면접과 비구조화된 면접을 병행하였으며 질문지외에 추가질문을 하여 면접자의 생각을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접내용에는 전통혼례절차인 의혼, 납채, 납폐, 대례, 현구고례 등을 묻는 질문들이 포함되었다.

의혼과 관련된 문항은 혼담과 중매에 관한 문항, 납채에 관한 문항은 청혼과 허혼의 절차, 혼인날짜의 결정, 사주단지, 택일단지 등을 주고받았는지의 여부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납폐에 관한 문항은 주고받은 예단·예물의 구체적 사항, 함속의 물품, 함 받는 의식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대례에 관한 문항은 혼인 당일 절차에 관한 문항, 현구고례에 관한 문항은 며칠만에 우귀하였는지, 폐백을 드리던 범위, 폐백음식, 조식문안, 사당폐백 등에 관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Ⅳ. 경북지역 종가의 혼례문화 사례분석

1. 종가 면접 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

1) 의성김씨 귀봉(龜奉) 종가 종부

의성김씨 귀봉(龜奉)종가의 종부는 경북 안동군 예안면에서 1924년에 출생하였으며, 혼인날짜는 1940년 11월 3일이다. 봉화김씨 금성계 종가의 아버지와 김녕김씨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였고, 시아버지는 의성김씨, 시어머니는 전주류씨였다. 2명의 아들을 두고 있으며 중매를 통해 혼인을 하였다. 혼례는 신부집 마당에서 거행되었으며 폐백을 드렸다. 자제의 혼례는 모두 중매혼을 통한 신식혼례를 하였다. 이 가문 혼례의 특징적인 점은 친정에서 혼례를 치른 후 당일 시댁으로 신행을 왔으며 첫날밤은 시댁 사랑방에서 치루었고 너무 어린나이(17세)에 시집을 왔다는 이유로 친정으로 가서 1년을 지내다가 다시 시댁으로 돌아온 묵신행을 했다는 점이다. 혼인시 오가던 납채서는 한국전쟁 때에 피난을 하던 중 분실되어 현재 간직하고 있지 않으며 시집 오던 당시 시댁에서 준비해 주었던 농을 간직하고 있었다.

2) 풍산류씨 서애(西厓)종가 충효당(忠孝堂) 중부

풍산류씨 서애(西厓)종가 충효당(忠孝堂) 중부는 경주최씨 아버지와 청주조씨 어머니 사이에서 1927년에 출생하였다. 만석꾼을 자랑하는 경주 고동 최씨 종가의 둘째딸로 20살 나던 해, 1948년 12월 5일에 중매를 통해 혼인을 하였다. 시아버지는 풍산류씨, 시어머니는 진양정씨이다. 현재 2남 1녀를 두고 있다. 양가는 함을 서로 주고받았고,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않았다. 혼례는 전통방식으로 신부집 마당에서 거행되었고 폐백을 드렸다. 자제의 혼례는 중매혼을 통한 신식혼례로 하였다. 서애종가는 중부의 친정 고모가 서애종가로 시집와서 다시 중매를 하는 연줄혼이 행해졌으며, 시댁이 너무 가난하여 금반지 세돈만 받고 시집 올 정도로 예물을 약소하게 주고 받은 점, 혼인시 오가던 혼서지 및 연결서 사주단자 등의 유물을 간직하고 있는 점이 특징적이었다.

3) 광산김씨 퇴촌공파 쌍벽당(雙璧堂) 종손

광산김씨 퇴촌공파 쌍벽당(雙璧堂) 종손은 1935년 봉화군 봉성면 거촌리에서 출생하였다. 혼인은 1952년 12월에 하였으며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다. 중매를 통해 혼인을 하였으며 아버지는 광산김씨, 어머니는 안동권씨이다. 중부의 아버지는 함양박씨, 어머니는 예안이씨이다. 현재 4남 1녀의 자제를 두고 있다. 양가는 함을 서로 주고받았고, 약혼식은 하지 않았다. 혼례는 전통방식으로 신부집 마당에서 거행되었고 폐백을 드렸다. 자제의 혼례는 신식혼례로 하였지만 청혼서 허혼서는 주고받았다. 이 가문은 종손이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여의고 가문을 이어 가야 했으므로 고 3배 혼인을 한 것이 특징적이다.

4) 동래정씨 석문(石文)파 종손

동래정씨 석문(石文)파 종손은 1937년 동래정씨 아버지와 전주류씨 어머니 사이에서 출생하였으며 출생지는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이다. 1955년 10월 6일에 중매를 통해 혼인을 하였다. 당시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하고 있었다. 중부의 아버지는 재령이씨, 어머니는 안동김씨이며 현재 1남 3녀를 두고 있다. 양가는 함을 서로 주고받았고, 약혼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 혼례는 전통방식으로 신부집 마당에서 거행되었고 폐백을 드렸다. 자제의 혼례는 연애를 통한 신식혼례를 하였다.

5) 안동장씨 경당(敬堂)종가 종손

안동장씨 경당(敬堂)종가의 종손은 1938년에 경북 안동에서 출생하였으며 아버지는 안동장씨, 어머니는 전주류씨이다. 1965년에 중매를 통해 혼인을 하였으며 당시 26세의 나이였다. 중부의 아버지는 안동권씨, 어머니는 의성장씨이다.

현재 2남 2녀의 자제를 두고 있다. 양가는 함을 서로 주고 받았고, 약혼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 혼례는 전통방식으로 신부집 마당에 거행되었고 폐백을 드렸다. 자제의 혼례는 장남은 전통혼례를 하였고 나머지 자제는 신식혼례를 하였으나 예식장에서 폐백을 치르지 않고 집에서 폐백례를 하였다.

이 가문은 종손이 상신(喪身)으로 혼인을 했기 때문에 신행시 중부가 소복을 입고 시댁으로 왔으며 3년상을 치른 후에 일반옷으로 돌아입었다. 또한 신랑다루기 풍습에서 처가에서 '소태 감주'를 만들어 신랑을 시험한 재미있는 일화도 있다.

6) 진성이씨 송재(松齋)종가 중부

진성이씨 송재(松齋)종가의 중부는 여주이씨 아버지와 아산장씨 어머니 사이에서 경북 경주시 양동에서 1941년에 출생하였다. 중매를 통해 1966년 2월 13일에 혼인을 올렸다. 26세에 혼인을 하였으나 그 당시로는 그렇게 늦은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시아버지는 진성이씨이고 시어머니는 부림홍씨이며 현재 1남 3녀를 두고 있다. 배우자 선택은 중매로 하였고, 함을 주고받았으며, 약혼식은 하지 않았다. 혼례는 신식으로 서울 시민회관에서 올렸으며 혼례 후 시민회관 내 폐백실에서 폐백을 드렸다. 자제의 혼례는 모두 결혼식장에서 신식혼례를 하였다.

7) 안동권씨 충정공파 충재(沖齋)종가 종손

안동권씨 충정공파 충재(沖齋)종가 종손은 경북 봉화군 답실마을에서 1943년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는 풍산류씨였다. 1971년 11월 25일에 중매를 통해 혼인 하였으며 혼인 당시 나이는 29세였다. 중부는 월성손씨 아버지와 경주이씨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현재 3명의 아들을 두고 있으며 장남과 함께 살고 있다. 양가는 함을 서로 주고 받았고, 약혼식을 따로 하지 않았다. 혼례는 전통방식으로 신부집 마당에서 거행되었고 폐백을 드렸다. 자제의 혼례는 중매혼을 통한 신식혼례를 하였으나 신행만큰은 집에서 일가친지를 모셔놓고 제대로 하였다.

8) 전주류씨 정재(定齋)종가 중부

전주류씨 정재종가 중부의 본관은 광산김씨이고 어머니는 옥천전씨이다. 시댁의 시아버지는 전주류씨, 시어머니는 성산이씨를 본관으로 하고 있다. 1953년에 태어났고, 현재 2남 3녀의 자제를 두고 있다. 혼례는 중매를 통하여 1975년에 예식장에서 신식으로 하였으나 폐백은 신행 후 시댁에서 드렸다. 신혼여행은 원래 온양온천으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친구들이 신혼여행을 따라 오는 터에 여행지를 팔공산 동화사로 바꾸었다. 양가는 함을 서로 주고 받았고,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않았고 혼사말이 오가고 15일만에 혼인을 하였다. 이미 양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of interview subjects of the main family

Interview subjects	Birthplace	Year of birth	Age	Year of marriage	Maiden home			Husband's home			Children	Wedding of the person in question				Children's wedding
					Father	Mother	Father	Mother	Father	Mother		Ham (蔘)	Engagement	Wedding form	Wedding place	
Jongbu (宗婦) of Gwibong main family for the Kims of Uiseong	Andong in Gyeongbuk	Year in 1924	88 years old	Year in 1940	The Bonghwa Geum clan	The Kimnyeong Kim clan	The Uiseong Kim clan	The Jeonju Ryu clan	2 sons	Matchmaking	O	X	Traditional	Yard of bride's family	Husband's home	New-type wedding
Jongbu (宗婦) of Seoae main family for the Ryus of Pungsan	Yangdong in Gyeongju	Year in 1929	83 years old	Year in 1948	The Gyeongju Choe clan	The Cheongju clan	The Pungsan Ryu clan	The Jinyang Jeong clan	2 sons and 1 daughter	Matchmaking	O	X	Traditional	Yard of bride's family	Husband's home	New-type wedding
Grandnephew of Ssangyeokdang main family in Toechonggpa (退村公派) for the Kims of Gwangsan	Bonghwa in Gyeongbuk	Year in 1935	77 years old	Year in 1952	The Hamyang Park clan	The Yeon Lee clan	The Gwangsan Kim clan	The Andong Gwon clan	4 sons and 1 daughter	Matchmaking	O	X	Traditional	Yard of bride's family	Husband's home	New-type wedding
Grandnephew of Seokmumpa (石文派) for the Jeongs of Dongrae	Yeongyang in Gyeongbuk	Year in 1937	75 years old	Year in 1955	The Jaeryeong Lee clan	The Andong Kim clan	The Dongrae Jeong clan	The Jeonju Ryu clan	1 son and 3 daughters	Matchmaking	O	X	Traditional	Yard of bride's family	Husband's home	New-type wedding
Grandnephew of Gyeongdang main family for the Jangs of Andong	Andong in Gyeongbuk	Year in 1938	74 years old	Year in 1965	The Andong Gwon clan	The Uiseong Jang clan	The Andong Jang clan	The Jeonju Ryu clan	2 sons and 2 daughters	Matchmaking	O	X	Traditional	Yard of bride's family	Husband's home	Traditional wedding
Jongbu (宗婦) of Songjae main family for the Lees of Jinseong	Yangdong in Gyeongju	Year in 1941	71 years old	Year in 1966	The Yeoju Lee clan	The Asan Jang clan	The Jinseong Lee clan	The Burim Hong clan	1 son and 3 daughters	Matchmaking	O	X	Western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Pyebaek (幣帛) room of Sejong Center for the Performing Arts	New-type wedding
Grandnephew of Chungjae main family for the Gwons of Andong	Bonghwa in Gyeongbuk	Year in 1943	69 years old	Year in 1971	The Wolseong Sohn clan	The Gyeongju Lee clan	The Andong Gwon clan	The Pungsan Ryu clan	3 sons	Matchmaking	O	X	Traditional	Yard of bride's family	Husband's home	New-type wedding
Jongbu (宗婦) of Jeongjae main family for the Ryus of Jeonju	Yean in Gyeongbuk	Year in 1953	59 years old	Year in 1975	The Gwangsan Kim clan	The Okcheon Jeon clan	The Jeonju Ryu clan	The Seongsan Lee clan	3 sons and 2 daughters	Matchmaking	O	X	Western	Wedding hall	Husband's home	New-type wedding
Jongbu (宗婦) of Nongam main family for the Lees of Yeongcheon	Yangdong in Gyeongju	Year in 1959	53 years old	Year in 1982	The Yeogang Lee clan	The Haksseong Lee clan	The Yeongcheon Lee clan	The Hanyang Jo clan	2 sons and 1 daughter	Matchmaking	O	X	Western	Wedding hall	Husband's home	Traditional wedding
Jongbu (宗婦) of Chungitdang main family in Saseonggongpa (司成公派) for the Choes of Gyeongju	Daegu	Year in 1950	62 years old	Year in 1986	The Hapcheon Lee clan	The Milyang Park clan	The Gyeongju Choe clan	The Yangdong Lee clan	3 sons and 1 daughter	Matchmaking	X	X	Western+ Traditional	OO Wedding hall in Yeongdeun gpo of Seoul	Husband's home	New-type wedding

가 어른들끼리 ‘혼의(婚儀)’가 있는 터라 당사자의 의견은 없었다. 자제는 2남 3녀 중 두명만 출가를 하였으며 모두 신식 혼례를 하였다. 전주류씨 정재(定齋) 종가에서는 혼서지 보, 혼서지, 연결서, 혼서지 및 단자를 소중히 보관하고 있었다.

9) 영천이씨 농암종가 종부

영천이씨 농암종가 종부의 본관은 여강이씨이고 어머니는 학성이씨이다. 시댁의 시아버지는 영천이씨, 시어머니는 한양조씨를 본관으로 하고 있다. 1959년에 태어났고, 현재 2남 1녀의 자제를 두고 있다.

혼례는 중매를 통하여 1982년에 예식장에서 신식으로 하였으나 폐백은 신행 후 시댁에서 드렸다. 신혼여행은 온양온천으로 갔으나 첫날밤은 친정집에서 보냈다. 양가는 함을 서로 주고 받았고, 약혼식은 따로 하지 않았고 종손은 혼인 전 관례를 치렀다. 자제의 혼례는 아들 딸 상관없이 모두 종가에서 꼭 오실분만 초대해서 치르기로 계획되어 있으며 자제 모두가 동의한 상태이다. 영천이씨 농암종가에서 혼례절차 중 소중한 자료인 혼서지, 연결서 등을 잘 보관하고 있었다.

10) 경주최씨 사성공파 충의당(忠義堂) 종부

경주최씨 사성공파 충의당(忠義堂) 종부의 본관은 함천이씨이고 어머니는 밀양박씨이다. 시댁의 시아버지는 경주최씨, 시어머니는 양동이씨를 본관으로 하고 있다. 1950년에 태어났고, 현재 3남 1녀의 자제를 두고 있다. 혼례는 중매를 통하여 1986년 11월 22일에 서울 영등포 OO예식장에서 신식으로 올렸다. 함은 생각하였고, 약혼식을 따로 하지 않았으며 혼례 후 폐백은 신행 후 종가에서 드렸다. 자제의 혼례는 모두 신식혼례로 하였으나 막내는 서원(書院)에서 전통혼례를 하였다. 함이나 이바지 등은 모두 생각하였다.

2. 종가의 혼례문화에 대한 분석

1) 의혼

10가문 중 진성이씨(1966년도 혼인), 전주류씨(1975년 혼인), 영천이씨(1982년 혼인), 경주최씨(1986년도 혼인) 가문은 중매혼을 통한 신식혼례를 하였고 나머지 6개 가문인 의성김씨(1940년도 혼인), 풍산류씨(1948년도 혼인), 광산김씨(1952년도 혼인), 동래정씨(1955년도 혼인), 안동장씨(1965년도 혼인), 안동권씨(1971년도 혼인)는 중매혼을 통한 전통혼례를 하였다. 가문에 따라 혼인방법은 차이가 있었으나, 중매를 통한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다. 혼인은 두 집안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했으며 배우자의 인품보다는 상대 집안의 조건을 철저히 따져 혼사가 이루어졌다. 의성김씨, 풍산류씨, 광산김씨, 동래정씨, 안동장씨, 안동권씨

가문은 혼인 당일 첫날밤이 되어서야 겨우 신부의 얼굴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종가에서 종가로 시집을 왔어. 나는 금성계 종가의 종녀이고 상대는 유명한 의성김씨 귀봉종가의 종손이였지. 얼굴은 한 번도 안 봤지. 그땐 사진도 없고 옛날에는 앓은뱅이라 해도 혼사가 정해지면 혼인을 해야 했어. 신랑 얼굴은 첫날밤에 봤어” (의성김씨 귀봉종가 종부(88세), 1940년 혼인)

또한 광산김씨 퇴촌공파 쌍벽당 종손의 사례를 통하여 전통시대부터 이어져 온 유교적 규범과 사회적 혼란 속에서 남녀가 만나는 것조차 어려운 시기였음을 알 수 있다.

“1950년에 우리 아버지는 중앙에 공무원으로 계시다가 이북으로 납북되었고 어머니는 6.25사변 나던 해에 요새말로 하면 위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 우리 할아버지는 그 당시 61세이셨는데 내가 고등학교 땀길 때 환갑이셨어. 내가 종손이고 우리 형제가 5남매인데 모두 고아가 된 거지. 아버지도 안계시고 어머니도 안계시고 할아버지는 누워 계시고 어쩔사리 이 집이 얼마나 어설플지 다 알지. 그러니까 내가 혼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이래 가지고 혼례를 했는데 신부를 본적도 없고 고등학교도 졸업도 안하고 혼례를 하니깐 얼마나 슬프던지... 아무리 비밀로 해도 가까운 친구는 알까 아니며. 손가락질 당하고 싶지 않아 방학 때 일사천리로 했어. 혼삿말 오가고 3개월 안에 한 거지” (광산김씨 퇴촌공파 쌍벽당 종손(77세), 1952년 혼인)

또한 이들의 중매는 대부분 집안 어른이 하셨는데 주로 조부님이 많이 하셨고 더러는 시삼촌, 시고모가 중매를 선 집안도 있었다. 일반 민가에서는 주로 중신아버로 불렸던 중매인이 소개를 많이 하였으나 종가는 철저한 집안끼리의 만남이었다. 이들은 특히 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중매를 하여 문중 상호간에 서로 격이 비슷하면서 증첩적인 혼인관계가 이루어지는 가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었다. 주로 친가의 ‘고모’나 ‘사촌’이 같은 문중으로 시집을 오고 그들에 의해 중매가 주선되기도 하였다. 특히 풍산류씨 서애종가 종부의 사례를 통하여 중매혼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혼사말은 우리 조부가 하셨어. 우리 조부가 시댁 어른의 친구분이야... 신랑 집 사는거는 우리 친정 아버지 종고모한테 들었는데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종고모가 풍산류씨 집안으로 시집을 가셨거든. 여기 시집 오셨으니까 우리 아버지 종고모가 내한테는 시중조모가 되셨어. 그래서 나는 할매라 불렸지” (풍산류씨 서애종가 종부(83세), 1948년 혼인)

또한 문중 간에 수대에 걸친 학맥에 의해 서로 교류하는 집안끼리 혼인이 성사되기도 하였다. 영천이씨 종부의 경우 시댁은 퇴계 이황의 학맥을 이어받은 가문이고, 친정은 회재 이언적의 자손이었다. 1982년에 신식혼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집안 어른들끼리의 교류로 인해 서로의 만남이 지속되었고 혼인에서 자신의 의견이란 없었다.

“시어른이 경주 양동의 딸 집에 놀러오셨다가 오래 계시니까 심심찮아. 그래서 선대때부터 회재 이연적 선생하고는 친분이 있어서 우리 집에 놀러 오신기라. 그래서 서로 이러니 저러니 대화 하시다가 우리 종손이 장가 못 갔으니 선 한번 보자 해서 이미 그 날 정혼을 하고요 우리는 나중에 결정된 뒤에 형식으로 만나기라.....” (영천이씨 농암종가 종부(53세), 1982년 혼인)

이전 시대와 마찬가지로 정혼과정에서 혼인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였다.

한편 전주류씨 종부의 경우 1970년대에 혼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양가가 혼사말이 오가고 십오일만에 혼인을 하였다. 양가에서 이미 혼의(婚儀)가 있은터라 당사자의 만남은 형식적인 만남에 불과하였다. 궁합은 대부분의 가문이 따로 보지 않았다. 또한 혼인날도 날 잡아주는 사람을 통해 택일을 하기보다는 보다는 그냥 집안의 어른이 좋다고 하는 날에 혼인을 하였다.

2) 납채

청혼서와 허혼서 사주단지, 연결서는 10가문이 모두 주고 받았다. 그런데 정작 혼인 당사자는 혼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혼답이 들어온 것조차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혼인 당사자들의 의사는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들이 굳이 말해 줄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개인은 두 집안의 만남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했을 뿐 혼인은 집

안과 집안의 만남이었다.

“나는 혼사 말이 언제 오갔는지 전혀 몰랐어. 그냥 할아버지가 올해 정혼을 했으니까 장가가라 캐서 간 거야” (풍산류씨 종손(85세), 1948년 혼인)

혼인날짜의 결정자는 전통적으로 신부측에서 결정하는 것으로 정하였으며 대체로 신랑집에서 청혼서를 보내면 신부집에서 허혼서를 보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순진하게 편지해서 신랑집에서 이제 편지를 가져가지 신부를 이제 다고 이런 편지가 가면 그러면 저 쪽집에서 준다고 편지를 쥐 가지고 보내주고 그래만 했지 딱 건 없었지. 신랑 집에서 신부 집에 내가 장가를 가겠다고 하는 그런 편지고 그래 이제 신부 집에서 그래 내 딸을 준다 그런 편지를 쥐서 보냈지 그럼 다 됐지. 우체국으로 편지가 탕기고 중매쟁이 그런 건 없었어. 그리고 나서 1년까지는 안 났을거고 한 반년쯤 후에 혼인 했어” (의성김씨 종부(88세), 1940년 혼인)

10가문 중 진성이씨 가문만 신랑측에서 혼인 날짜를 결정하였다. 그 당시 신랑·신부가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었으므로 신부집에서 혼인하기 좋은 날 이틀을 정해서 신랑택에 전하였고 신랑집에서 최종 결정하는 방식으로 하였다.

3) 납폐

신랑집에서 신부집으로 보내는 예단으로는 주로 옷감, 이불감, 버선, 이불솜 등이 많았다. 이들 가문에서 도포는 빠져

Table 3. Marriage talks and spouse selection of interview subjects of the main family

The main family	Contents	Year of marriage	Age of marriage	Age at present	Selection of spouse
Jongbu (宗婦) of Gwibong main family for the Kims of Uiseong		Year in 1940	Bride aged 17	88 years old	Family-based matchmaking
Jongbu (宗婦) of Seoae main family for the Ryus of Pungsan		Year in 1948	Bride aged 20	83 years old	Family-based matchmaking
Grandnephew of Ssangbyeokdang main family in Toechongongpa (退村公派) for the Kims of Gwangsan		Year in 1952	Bridegroom aged 18	77 years old	Family-based matchmaking
Grandnephew of Seokmunpa (石文派) for the Jeongs of Dongrae		Year in 1955	Bridegroom aged 19	75 years old	Family-based matchmaking
Grandnephew of Gyeongdang main family for the Jangs of Andong		Year in 1965	Bridegroom aged 28	74 years old	Family-based matchmaking
Jongbu (宗婦) of Songjae main family for the Lees of Jinseong		Year in 1966	Bride aged 26	71 years old	Family-based matchmaking
Grandnephew of Chungjae main family for the Gwons of Andong		Year in 1971	Bridegroom aged 29	69 years old	Family-based matchmaking
Jongbu (宗婦) of Jeongjae main family for the Ryus of Jeonju		Year in 1975	Bridegroom aged 27	53 years old	Family-based matchmaking
Jongbu (宗婦) of Nongam main family for the Lees of Yeongcheon		Year in 1982	Bride aged 24	59 years old	Family-based matchmaking
Jongbu (宗婦) of Chunguidang main family in Saseongongpa (司成公派) for the Choes of Gyeongju		Year in 1986	Bride aged 37	62 years old	Matchmaking (bridegroom's second marriage)

서는 안 될 중요한 품목이었는데 도포는 혼수 때 반드시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었다. 도포의 유·무에 따라 잘 해온 혼수와 그렇지 못한 혼수가 결정되고 거기에 시어머니의 체면이 달려 있었기 때문에 도포의 의미는 남달랐다. 그 당시 경상도 지방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농은 신랑집에서 하는 물품 중에 하나였다.

“농은 안 가져오고 도포는 3개 해 가지고 왔죠. 시조부 시아버지 신랑

꺼. 그때 저로서는 잘해온다고 했죠. 그때는 잘 살았으니까 길쌈을 전부 할머니하고 모친하고 집에서 다했기 때문에 집에서 다 해 가지고 온 걸로 했어요. 이불은 명주이불 했어요. 전부 집에서 목화 따서 다 해가 오는 걸로 했죠. 옛날에는 농이 없고 상자처럼 생긴 대나무로 만든 짜리작대기로 만든 거에다 넣어 왔어요”(안동장씨 경당중가 중부(72세), 1965년 혼인)

신부집에서 신랑집으로 보내는 예단은 신랑집에서 보내 온 이불감, 옷감으로 만든 시부모 및 시조부모 이불, 옷, 어

Table 4. Present status of Napchae (納采) in interview subjects of the main family

The main family	Contents	Appearance of the marriage proposal letter and the marriage approval letter	Appearance of exchanging the letter to the house of the fiancée in which the Four Pillars of the bridegroom-to-be are written	Appearance of exchanging the letter of Yeongil (涓吉)	Decision maker of the marriage date
Jongbu (宗婦) of Gwibong main family for the Kims of Uiseong		○	○	○	Bride's family
Jongbu (宗婦) of Seoae main family for the Ryus of Pungsan		○	○	○	Bride's family
Grandnephew of Ssangbyeokdang main family in Toechongongpa (退村公派) for the Kims of Gwangsan		○	○	○	Bride's family
Grandnephew of Seokmunpa (石文派) for the Jeongs of Dongrae		○	○	○	Bride's family
Grandnephew of Gyeongdang main family for the Jangs of Andong		○	○	○	Bride's family
Jongbu (宗婦) of Songjae main family for the Lees of Jinseong		○	○	○	Bridegroom's family
Grandnephew of Chungjae main family for the Gwons of Andong		○	○	○	Bride's family
Jongbu (宗婦) of Jeongj ae main family for the Ryus of Jeonju		○	○	○	Bride's family
Jongbu (宗婦) of Nongam main family for the Lees of Yeongcheon		○	○	○	Bride's family
Jongbu (宗婦) of Chunguidang main family in Saseongongpa (司成公派) for the Choos of Gyeongju		○	○	○	Bride's fami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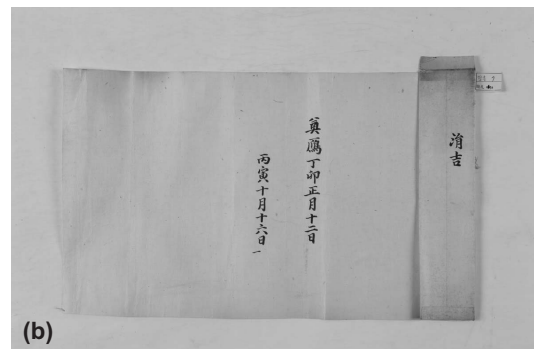


Figure 1. (a) Honseoji (婚書紙) and (b) Yeongil (涓吉) letter in Jongbu (宗婦) of Seoae main family for the Ryus of Pung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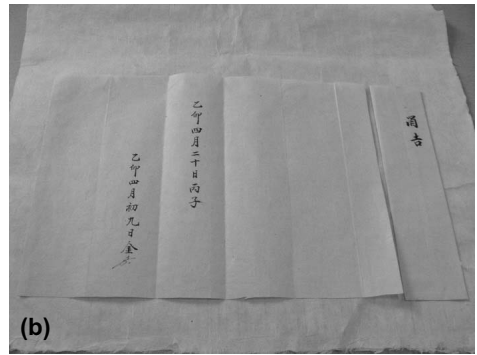


Figure 2. (a) Honseoji (婚書紙) and (b) Yeongil (涓吉) letter in Jongbu (宗婦) of Jeongjae main family for the Ryus of Jeonj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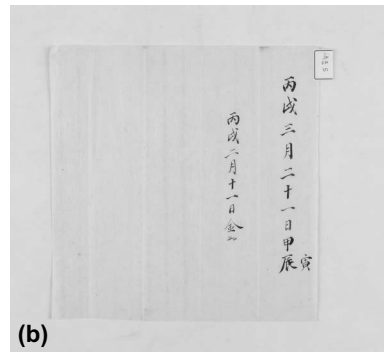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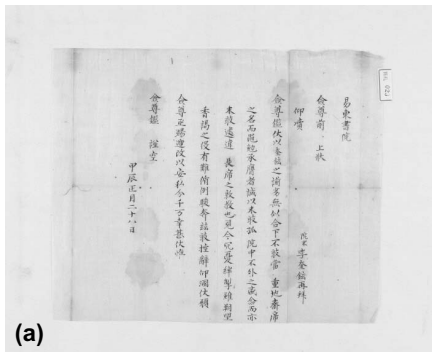


Figure 3. (a) Honseoji (婚書紙) and (b) Yeongil (涓吉) letter in Jongbu (宗婦) of Nongam main family for the Lees of Yeongcheon.

른들 한복 두루마기를 혼수로 가져갔다. 예단의 범위는 시부모님, 시조부모님, 신랑 식구들이 주었다. 민가에서는 돌아가신 조상예단도 해 가지고 갔으나 중가에서는 돌아가신 조상예단은 해 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천이씨의 경우 시댁의 사촌이 너무 많아 시댁 어린 외에도 일가친척들에게 예단을 해야 했다. 예단을 드린 인원이 사오십명은 족히 되었다.

“우리는 사촌이 많아, 모두 열두명인데 짝 맞추면 스물네명에 시누이들이 모두 다섯집, 다섯집 시누가 들씩 낳아서 조카가 열명... 어렵잖아 사오십명은 되었어. 그래 가지고 여자들한테는 세탁할 수 있는 치마저고리 감으로 하고 남자들한테는 양복감으로 했지. 그게 실용적이고 좋더라고...” (영천이씨 종부(53세), 1982년 혼인)

한편 신부가 받은 예물로는 금반지, 금비녀, 한복감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중가가 당시 어렵게 살았으므로 특별히 많은 예물을 해 주지 못하였다.

“그 당시 우리집이 너무 못살아서 마이는 못해 보내고 어르신들께서 보내서 잘은 모르겠는데 뭐 옷가지하고 그리고 뭐 폐물은 금반지 하나 하고 보냈다 하던가 그래서 너무 약소하다고 했다고 나중에 그러대”(풍산류씨 종손(85세, 1948년 혼인)

하지만 시대가 변하여 1980년대에 혼인한 영천이씨 가문

의 경우는 치마저고리 및, 화장품, 금반지, 다이아몬드, 양산, 가방 등 예물의 품목이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4) 대례

10가문 중 6가문은 전통혼례를 했으나 4개 가문은 신식혼례를 하였다. 전통혼례를 하기 전 며칠 전에 갓을 쓰고 두루마기를 입고 관례를 했다. 관례는 그의 집에서 했는데 일가친척 어른들과 이웃 어른들이 모두 왔다. 10가문 중 풍산류씨 서애종가와 영천이씨 농암종가 2가문만이 관례를 치루었다.

영천이씨 종손의 경우 신식혼례를 하였으나 혼인을 하기 전에 관례를 치렀다. 친지 어른들이 오셨고 음식들이 분주히 오고갔다. 관혼상제(冠婚喪祭)의 예에서 ‘관(冠)의 예’와 ‘혼(婚)의 예’가 조금의 시차를 두고 동시에 이루어진 셈이다. 관례의식에는 두 가지 의미 있는 절차가 있다. 하나는 ‘갓(冠)을 쓰는 일’ 일이고, 다른 하나는 ‘자(字)를 받는 일’이다. 나머지 시간은 혼례를 앞둔 예비 경사인 만큼 온종일 웃음과 음식과 환담으로 이어진다(p. 6)[24].

“제가 도포(道袍)라는 옷을 입고 사랑방으로 나가니 방안에 20여명의 단아한 노인들이 둘러앉아 계셨어요. 노인들 사이에서 몇 마디 대화가 오고 간 뒤 이윽고 그 가운데 한분이 일어나서 내게 갓을 씌워주시

고 갓끈을 묶어 주셨어요. 그리고 조금 후 조그만 쪽지를 내게 보여 주셨어요. 거기에는 한자 두 자가 정갈하게 써어져 있었는데 계도(繼道)라는 자(字)였어요. 이을 계, 법도 도..... 도를 이으라고..... 지금 사문(斯文)의 도(道)가 쇠퇴하니 가문을 잘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으셨대요” (영천이씨 종손(55세), 1982년 혼인)

대례는 모두 신부집에서 치루었다. 대례가 이루어지는 곳을 대례청이라고 하는데 신부집 마당에 차려진다. 신랑은 집이 먼 경우 대부분 전날 신부집 근처에 와서 잠을 자거나 아니면 당일 일찍 출발하여 대례를 치룰 신부집으로 왔다. 대체로 버스를 타고 오거나 형편이 좋으면 자동차를 타고 와서

Table 5. Wedding gifts being sent to the bridegroom's family from the bride's family

The main family	Contents	Kinds of wedding gifts	Range of wedding gifts
Jongbu (宗婦) of Gwibong main family for the Kims of Uiseong		Quilt, Clothes, 7Chup (疊)-Bansang (飯床) Tableware Set	Parents-in-law, bride's family members
Jongbu (宗婦) of Seoae main family for the Ryus of Pungsan		Bedding, Clothes, Food	Grandparents-in-law, Parents-in-law, third-cousin relatives
Grandnephew of Ssangbyeokdang main family in Toechongongpa (退村公派) for the Kims of Gwangsan		Quilt, Clothes	Parents-in-law, and elders of husband's home
Grandnephew of Seokmunpa (石文派) for the Jeongs of Dongrae		Food, ear shell	Parents-in-law, and elders of husband's home
Grandnephew of Gyeongdang main family for the Jangs of Andong		Korean full-dress attire and quilt for grandfather-in-law, father-in-law, and bridegroom	Parents-in-law and all the relatives
Jongbu (宗婦) of Songjae main family for the Lees of Jinseong		Quilt and Korean full-dress attire for grandfather-in-law and parents-in-law, Bridegroom's clothes	Parents-in-law, bride's family members
Grandnephew of Chungjae main family for the Gwons of Andong		Korean traditional clothes and quilt for parents-in-law, Korean socks for all the relatives	Parents-in-law and all the relatives
Jongbu (宗婦) of Jeongjae main family for the Ryus of Jeonju		Korean traditional clothes and quilt for parents-in-law, Korean socks for all the relatives	Parents-in-law and all the relatives
Jongbu (宗婦) of Nongam main family for the Lees of Yeongcheon		Parents-in-law's Korean traditional clothes and bedclothes, 12Jongban (縱班) Chima (skirt) & Jeogori (coat), and suit materials	Elders of husband's home, 12Jongban (縱班) for Daesoga (大小家)
Jongbu (宗婦) of Chunguidang main family in Saseongongpa (司成公派) for the Choes of Gyeongju		Quilt, parents-in-law's Korean traditional clothes and durumagi (traditional Korean overcoat)	Parents-in-law, sister-in-law



Figure 4. (a) Chima (skirt) & Jeogori (coat) and (b) Cheondambok (淺淡服) that Jongbu (宗婦) of Jeongjae main family for the Ryus of Jeonju received as wedding gift.

Table 6.
Wedding gifts being sent to the bride's family from the bridegroom's family

The main family	Contents	Nappye (納幣) commodities	Ritual
Jongbu (宗婦) of Gwibong main family in Cheonjeonpa (川前派) for the Kims of Uiseong		Outer coat, red Chima (skirt) & Jeogori (coat)	Ham (函) enters on the very day of the wedding.
Jongbu (宗婦) of Seoae main family for the Ryus of Pungsan		Garments, gold ring	Bridegroom-enters together on the day of the marriage ceremony. Bride-receives it on the floor without Bongchi ddeok (Ham food).
Grandnephew of Ssangbyeokdang main family in Toechongongpa (退村公派) for the Kims of Gwangsan		Ring	Sleeping near the bride's house together with Hamjigi (ham carrier) on the day before the marriage ceremony.
Grandnephew of Seokmunpa (石文派) for the Jeongs of Dongrae		Chima (skirt) & Jeogori (coat), ring	A servant goes together carrying it on the day of the wedding. Sleeping near the bride's house on the day before the marriage ceremony.
Grandnephew of Gyeongdang main family for the Jangs of Andong		Hanbok (Korean traditional clothes), velvet	Entering directly with the Ham on the day of the marriage ceremony. The bride's family has no special ritual.
Jongbu (宗婦) of Songjae main family for the Lees of Jinseong		Gold ring, Hanbok Chima (skirt) & Jeogori (coat)	Receiving with wearing Korean traditional clothes. There was no special ritual.
Grandnephew of Chungjae main family for the Gwons of Andong		Gold ring, Hanbok Chima (skirt) & Jeogori (coat)	Ham carrier goes together with the servant.
Jongbu (宗婦) of Jeongjae main family for the Ryus of Jeonju		Pyemul (幣物), 10 pairs of Chima (skirt) & Jeogori	Performing by putting one pottery of rice cake on a table.
Jongbu (宗婦) of Nongam main family for the Lees of Yeongcheon		8 pairs of Chima (skirt) & Jeogori, 2 sets of cosmetics, gold ring, diamond, parasol, bag	Receiving Ham by spreading a mat.
Jongbu (宗婦) of Chunguidang main family in Saseongongpa (司成公派) for the Choes of Gyeongju		Omission	Omission

신부집 동네 어귀에서 말이나 가마를 타고 들어왔다.

“안동서 기차타고 경주역에서 내려가지고 그레 거기서 자동차 타고 신부집 동네 어귀에 내려서 신부 집에 들어갈 때는 가따타고 갔지. 그 가서 그레 사랑방에 가 가지고 옷 갈아 입었어”(풍산류씨 종손(85세), 1948년 혼인)

또는 신부집 근처에 미리 와서 자고 당일 날 아침 사모관대를 하고 신부집으로 들어가기도 한다. 이 때 신랑의 일가 친척(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종숙어른)을 상객으로 모시고 왔으며 함은 혼례 당일 같이 오는데 하인이 짊어지고 신랑보다 먼저 도착하였다. 신부집에서는 혼례식을 치를 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함 받는 의식은 따로 하지 않았다.

그러나 신식 혼례를 한 진성이씨 가문은 혼례 1주일 전에 함을 받았으며 새색시가 될 사람은 한복을 입었으며 신랑 될 사람 옆에 앉았다가 못 앉게 해서 그냥 방을 나갔다.

혼례가 끝나고 저녁이 되기 전까지 신랑은 중간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신부의 일가친척들과 술을 마시며 지내다가 밤이 되어서야 신방으로 들어간다. 신랑은 방에 들어가서 관대를 벗고 큰상을 받은 다음 신방으로 인도되어 첫날밤을 보낸다. 동래정씨 종손의 경우 신방에 들어왔을 때 신부는 이미 와 있었으며 방안에는 작은 주안상이 하나 차려져 있었다. 일가친척들과 친구들의 장난으로 장모와 처제들이 사람들을 보낸 후 겨우 초야를 치를 수 있었다.

한편 신식혼례를 한 진성이씨 가문의 종부는 한복에 면사포

Table 7.
Present status of marriage ceremony in interview subjects of the main family

The main family	Procedure on the day of marriage	Wedding night	Wedding dress	Handling bridegroom
Jongbu (宗婦) of Gwibong main family for the Kims of Uiseong	Sticking Binyeo (ornamental hairpin) in a bride's braided hair after receiving Ham and throwing wooden wild goose into a bride's room.	Bridegroom's house	Wonsam (圓衫) Chima (skirt) & Jeogori (coat), bride's headpiece, Gwandae (冠帶) clothes, Gwandae (冠帶)	Not performed
Jongbu (宗婦) of Seoae main family for the Ryus of Pungsan	Being busy preparing for a feast. A bride stands by in a room with preparing.	Bride's house	Korean traditional wedding dress	Not performed
Grandnephew of Ssangbyeokdang main family in Toechongongpa (退村公派) for the Kims of Gwangsan	Being busy preparing for a feast. A bride stands by in a room with preparing.	Bride's house	Korean traditional wedding dress	Beating a bridegroom on the soles of the feet
Grandnephew of Seokmunpa (石文派) for the Jeongs of Dongrae	The bridegroom waits in Sarangbang (舍廊房: reception room in a house for male guests), and is equipped with Samogwandae (紗帽冠帶) after having a meal.	Bride's house	Korean traditional wedding dress	Pricking Songchim (松針) Beating a bridegroom on the soles of the feet
Grandnephew of Gyeongdang main family for the Jangs of Andong	Being busy preparing for a feast. A bride stands by in a room with preparing.	Bride's house	Korean traditional wedding dress	Beating a bridegroom on the soles of the feet Drinking Gamju (甘酒: sweet rice drink) of having been made of gall
Jongbu (宗婦) of Songjae main family for the Lees of Jinseong	New-type wedding, Chartering a vehicle	Honeymoon place Gyeongju	Hanbok (Korean traditional clothes), wedding veil, rubber shoes	Beating a bridegroom on the soles of the feet
Grandnephew of Chungjae main family for the Gwons of Andong	Being busy preparing for a feast. A bride stands by in a room with preparing.	Bride's house	Korean traditional wedding dress	Beating a bridegroom on the soles of the feet
Jongbu (宗婦) of Jeongjae main family for the Ryus of Jeonju	New-type wedding, Chartering a vehicle	Honeymoon place Donghwasan temple	New-type wedding dress	Songchim (松針), Beating a bridegroom on the soles of the feet
Jongbu (宗婦) of Nongam main family for the Lees of Yeongcheon	New-type wedding, Chartering a vehicle	Bride's house	New-type wedding dress	Not performed
Jongbu (宗婦) of Chunguidang main family in Saseongongpa (司成公派) for the Choes of Gyeongju	New-type wedding, Chartering a vehicle	Honeymoon place Jeju-do Island	Korean traditional wedding dress New-type wedding dress	Not performed

고무신을 신고 예식장에서 혼례식을 치렀다. 종손과 중부 모두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신식혼례를 치를 때 의상은 전통예복과 서양예복을 혼합한 형태였다.

영천이씨의 경우 예식장에서 혼례를 치르고 신혼여행을 경주로 떠났으나 친정집에서 첫날밤을 치른 후에 신혼여행

을 떠났다. 시부모님의 뜻인 만큼 정성들여 만든 원앙금침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

혼례식을 마친 신부는 신랑갈 때 신랑집의 거리가 멀지 않으면 신부는 집에서부터 가마를 타고 신랑집으로 오거나 신부집과 신랑집이 가마를 타고 오기 어려울 정도로 먼 거리

일 경우에는 자동차나 기차를 타고 와야 했다. 안동장씨 가문의 종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되서 혼인을 했기 때문에 상복을 입고 삼일신행을 했다. 종부는 시집와서 3년 내내 색깔있는 옷을 한번도 입지 못했다.

혼례식을 마친 신랑은 신부가 묵신행을 하면 보통 3일 정도 신부집에 머무르는데 신랑다루기는 이때 이루어진다. 신랑다루기를 할 때 장난꾼 역할은 신랑의 처남들과 마을의 젊은 청년들이 맡는다. 이들은 신랑을 술방울로 찌르면서 신랑을 괴롭히거나 몽둥이로 발바닥을 때리기도 한다.

안동장씨 가문의 종손은 처가에서 신랑을 시험하기 위하여 소태로 만든 감주를 먹였다. 매우 써서 못 먹을 정도였으나 아무말 없이 마셔서 장서방 대단하다는 소리를 들었다.

5) 현구고례

가마를 타고 신행 온 신부는 시택에 들어서면서부터 신랑 집안에 통합되기 위한 의례를 거친다. 불이 붙은 짚불을 넘음으로써 나쁜 기운을 없애고 깨끗한 몸으로 통합을 준비한다. 그런 연후에 시부모와 신랑의 일가 친척 어른들께 일일이 절을 하며 새로운 가족 구성원이 된 것을 신고한다. 경주최씨 종부는 가문에서 내려오는 폐백복과 족두리를 입고 폐백례를 올렸다.

“치마 저고리 위에 원삼입고 족두리까지 쓰고 폐백 올렸어요. 원래 가문에서 내려온 옷이에요. 그게 굉장히 소박하고 많이 낡았었어요. 잠깐 보면 궁중 영화에 나오는 상궁들이 쓰고 나오는 족두리 있잖아요. 간단하게 되어 있는 거 그런데서 약간 꾸며놓은 거예요. 수 좀 놓고 예뻐요. 그런데 안타까운 게 그때 찍은 사진 이런 게 다 같이 타버려 가지고 없어요”(경주최씨 종부(62세), 1986년 혼인)

폐백음식은 신행을 때 가지고 온 음식으로 준비하였다. 주로 대추, 유과, 밤, 소고기, 다식, 엿 등이었다. 폐백례의 범위는 모든 가문이 시부모에서부터 문중어른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올렸다. 폐백례를 올린 후 신부는 큰상을 받는다. 그때 대반²⁾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부에게 먹을 것을 권한다. 의성김씨 종부는 너무 정신이 없어서 떡국 국물을 조금만 받아 먹었다. 폐백례를 올린 후 다음날 새 며느리는 사당폐백을 올린다. 경주최씨 종부는 불천위마다 4대 봉사까지 모두 스무번을 절 했다. 시택에 와서 며칠을 지낸 신부들에게 신부 회가도 중요한 의례적 행사였다. 신부회기관 신부가 시누이 등의 안내를 받아 가까운 신랑의 일가친척 어른들 집에 찾아가 인사를 드리는 것이다.

“신부가 시집오고 며칠 지난 다음에 회가라 케 가지고 일가 친척집을 도는 게 있습니다. 우리 종가니까 큰집은 없고 작은집을 돌아가면서

밥한끼를 먹습니다. 아침은 집에서 먹고 점심 저녁은 돌아가면서 친척택에서 먹는데... 시가에 그런 건문을 보고 배우는 거지. 지금도 멧그래. 요즘도 신부가 오면 회가를 도는데 일일이 다 돌아요. 또 종택이니까 사당에 알현을 합니다. 신부하고 신랑하고 같이 와서 인사하고 지금도 그런 제도는 있습니다”(안동장씨 종손(74세), 1965년 혼인)

조석 문안은 각 가문마다 기간이 달랐다. 적게는 하루에서부터 길게는 일년까지 한 가문도 있다. 한편 상중에 혼례를 치른 안동장씨 종부는 3년을 빈소에 상식을 올렸다.

“그 당시 할아버지 아버지 양 대부가 계셨죠. 또 빈소가 할머니 시어머니하고 해서 두 분 계셨어요. 아침 상식을 두 번 드려야 합니다. 그 래 가지고 3년상을 했죠”(안동장씨 종손(72세), 1965년 혼인)

비교적 최근에 혼인을 한 경주최씨 종부는 시택에 가서 3일 지내는 동안 딱 하루 조석 문안을 올렸다.

6) 종손과 종부들의 혼례문화에 대한 제안

종손과 종부로서 종가를 지키면서 종가 고유의 혼례관행의 여부와 종손과 종부가 제안하는 새로운 혼례문화가 있는 지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각 종가마다의 고유의 혼인관행은 없었으나 풍산류씨 가문은 집안 즉 가문과 사람 됨됨이를 중요시 하였다.

“어 부모 조상으로서 손자나 아들을 다 키웠고, 손부의 경우 역시 집을 많이 보지 가문을 보고 또 당자를 보고....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자손을 똑똑한 자손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 해. 뉘니뉘니해도 양반 아니여도 그거는 요새 달리 벼슬은 없으니 공부 잘해서 좋은 학교가고 똑똑한 아이랑 혼례시켜야 그래야 좋은 자손을 낳아. 그건 우생학적으로 부인할 수가 없어. 그래야만 삼대적선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 조상으로써 가문하고 규수의 자질을 봐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손부로 맞고 싶지. 그러나 저네들이 연애 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면 어쩔 수 없잖아”(풍산류씨 종손(85세), 1948년 혼인)

경주최씨 가문 또한 집안을 보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였는데 특히 가정에서 어떻게 자랐는가를 중시하였다.

“저는 아까도 이야기 했듯이 집안을 보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 해요. 누구집 자손이고 그 이전에 그 어머니가 어떻게 아버지가 어떻게 하는 건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문제야는 문제부 모에서 나온다고 하듯이 그 부모가 바깥으로 보이는 거 거창하게 그 사람이 교수고 그 집안이 벼슬을 어여하고 하면서 가정에 충실하지 않을 때 애들이 많이 비뚤어져 있더라구요....(종략) 그러니까 니그러운 집에서 자란 여식이 큰 며느리로 오면 다른 사람들과 얼마나 잘 어울리겠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가정에서 어떻게 자라왔는가가 혼인에서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경주최씨 종부(62세), 1986년 혼인)

혼례문화에 대한 의견은 각 가문마다 달랐다. 풍산류씨 종손은 바람이 있다면 후손들이 자식을 많이 생산했으면 하였다. “거 부모말들 듣나 그렇지 저 둘이 좋아해야 되는 거지..... 여기 이제

2) 신부가 큰상을 받을 시 식사를 할 수 있게 도와주는 사람을 이르는 말.

Table 8.
Present status of Hyeongugorye (見舅姑禮) in interview subjects of the main family

The main family	Ugwi (于歸)	Greeting in the mornings and evenings	Range of Pyebaek (幣帛)	Pyebaek (幣帛) food	Pyebaek (幣帛) of ancestral shrine
Jongbu (宗婦) of Gwibong main family for the Kims of Uiseong	Muk-shinhaeng (默新行) following Do-shinhaeng (都新行)	One week	Parents-in-law, grandparents-in-law, uncle-in-law, aunt-in-law, cousin-in-law	Prepared by maiden home, Jujube, oil-and-honey pastry, chestnut, beef, a kind of pattern-pressed candy, glutinous rice jelly	Offered
Jongbu (宗婦) of Seoae main family for the Ryus of Pungsan	3-day Shinhaeng (新行)	One week	All without exception	Oil-and-honey pastry, jujube, chestnut, glutinous rice jelly	Offered
Grandnephew of Ssangbyeokdang main family in Toechongongpa (退村公派) for the Kims of Gwangsan	3-day Shinhaeng (新行)	Over 1 week	Parents-in-law and all the relatives	Oil-and-honey pastry, jujube, chestnut, glutinous rice jelly	Offered
Grandnephew of Seokmunpa (石文派) for the Jeongs of Dongrae	7-day Shinhaeng (新行)	One month	Up to the third cousin	Oil-and-honey pastry, jujube, chestnut, glutinous rice jelly	From the very day of wedding After 3 days in case of a bride
Grandnephew of Gyeongdang main family for the Jangs of Andong	3-day Shinhaeng (新行)	3 years	Family elders	Oil-and-honey pastry, glutinous rice jelly, chestnut, jujube	In 3 days
Jongbu (宗婦) of Songjae main family for the Lees of Jinseong	Following honeymoon	One week	Parents-in-law and all the relatives	Jujube, chestnut, chicken,	Not performed
Grandnephew of Chungjae main family for the Gwons of Andong	7-day Shinhaeng (新行)	1 year	Parents-in-law Family elders	Oil-and-honey pastry, glutinous rice jelly, chestnut, jujube	Offered
Jongbu (宗婦) of Jeongjae main family for the Ryus of Jeonju	3-day Shinhaeng (新行)	1 year	Parents-in-law, all the relatives Up to the third cousin	Gujeolpan (Platter of Nine Delicacies), glutinous rice cracker frizzled in oil, a kind of pattern-pressed candy	20 times
Jongbu (宗婦) of Nongam main family for the Lees of Yeongcheon	3-day Shinhaeng (新行)	1 year	Parents-in-law and all the relatives, Family elders, cousin-in-law	Clear strained rice wine, a kind of pattern-pressed candy, glutinous rice cracker frizzled in oil	24 times
Jongbu (宗婦) of Chunguidang main family in Saseongongpa (司成公派) for the Choers of Gyeongju	Following honeymoon	One day	Parents-in-law, Family elders	Jujube, chestnut (prepared by husband's house)	20 times

혼반(婚班) 카는게 있거든. 아 그래서 집에 가격(家格)이 있고 혼반(婚班)이 있고 그레 가지고 가격(家格)이 맞는 집 끼리 혼인이 왔다 갔다 하고 그리 했는데.. 요새 뭐 그런거 있나 아무리 좋은 규수가 있어도 좋은 신랑이 있다 하더라도 저 둘이 마음이 안 맞으면 안 되는데. 뭐 맘 들나 부모 맘 안들어 그러니까 지금 와 가지고는 요새 사람들이 마음이 맞아서 혼례를 한다고 하면은 서로 노력하면서 살아야 해. 요새 뭐 혼례 해 가지고 금방 이혼하는 집도 있고 그렇다고 하는데 그러지 말고 혼례 했으니까 서로 노력을 해야 돼. 양보하고 행복을 구축해 나가야 해. 아들 딸 놓고 제발 아들 딸 많이 생산했으면 좋겠어 그게 바람이야” (풍산류씨 중손(85세), 1948년 혼인)

동래정씨 가문의 중손은 성인도 시대를 따르라고 했다고 혼례도 시속을 따랐으면 하였다.

“뭐 옛날식으로 요새 안보고 지내지는 안 하잖아요. 서로 보고 뭐 서로 사겨 봐야 뭐 사람 어떤동 알거고 그제 정도고. 뭐 옛날같이 하는 혼례는..... 그건 시대상이 다르니까 그거는 단점이 많다고 봐야지. 그냥 시대를 따라 가는 게 좋겠다는 거예요. 속담에도 성인도 시대를 따르라고 했으니” (동래정씨 중손(75세, 1955년 혼인)

안동장씨 가문의 종손은 현대의 주말에 행해지는 혼례날짜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고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전통혼례를 후손들이 했으면 하였다.

“내 입장가지고 되는데 아니고 요즘 젊은 세대에서는 전통을 무시하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자기를 편리한 거 날 받는데 주로 토요일 일요일 이래 받아가지고 관습은 저버리고 본인들 편한 걸 위주로 하는데 하객 입장으로써는 내가 종손이니까 서울도 많이 갑니다. 그게 부담이 되고 그래요, 꼭 토요일 일요일날로 잡으니까 중첩이 되고, 어떤 날은 세군데 네 군데 가야 되는데 안동 같은데는 다닐 수 있는데 서울은 불가분 가야 되니까 딱 데는 못 가게 되고 한집만 가게 되죠. 앞으로 혼례하는 거는 주말을 이용하지 말고 평일날도 날 받아서 하면 서로 덜 답답할 수도 있고 내 입장으로써는 신혼보다는 구혼을 해가지고 우리 아름다운 미풍양속을 유지 해 줬으면 싶은 마음이고 손자가 혼례하게 되면 내가 그때까지 사지를 못하지 싶습니다만은 애들한테 그렇게 부탁하고 싶어요. 맏손자는 구혼을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안동장씨 종손(74세), 1965년 혼인)

안동권씨 종손은 현행 이루어지고 있는 예식장의 축의금에 대한 부분이 바뀌었으면 하였다.

“예식장에서 하는 거 나도 하기는 했지만 나는 예식장에서 하는 거 반대예요. 예식이라고 하는건 그렇게 많은 사람 초청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부조금 받을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혼례는 서로 간에 뜻이 있고 그런 걸로 축하해 줄 사람이 와서 해야지... 지금 하는 혼례식장에서 봉투 들고 와서 밥 먹으러 가는데 축하하는 마음에서 우리나라지 그거는 품앗이 같이 위한 것에 불과해요. 내 동생 혼례시킬 때 일체 청첩을 안했어요. 청첩을 내는 것은 축하해 주러 오라는 것인데 내가 청첩을 했으면 100명을 했으면 100명이 타는 버스 대절해야지. 요즘은 대절버스에 가족들이 다 타니까 갈 사람이 못하는 거야. 그래서 돈 봉투만 내고 가는 거야” (안동권씨 종손(69세), 1971년 혼인)

경주최씨 중부는 예단의 허례허식이 바뀌었으면 하였다.

“딱내 혼인 할 때는 사돈한테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태상을 받는 것도 우리는 큰집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해서 안 되고 요즘은 폐백이라고 하는 게 전부터 밖에 나와서 맞춰다 오니까 장사하는 사람 벌이를 해주는 거지 옛날처럼 그 집 가문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해운게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집안에는 어지간히 붙일 때도 없으니까 아예 없던 걸로 하자도 했고 예단도 하지 말라고 했어요. 단 혼례하면 장모님이 애들을 돌봐주고 장모님 사랑이라도 많이 주면 좋겠다 했어요. 애들이 잘 살아가기 위해서 혼인을 시키는 거지 그게 왜 어른들이 잔치하듯이 하는 게 항상 못마땅했으니까요. 그걸 내가 이제 실현을 한번 해 본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좋더라고요. 사돈도 좋고 또 탄 사람들도 좋고요. 처음엔 의심하시던데 혼인을 하고 나니까 괜찮은 가봐요” (경주최씨 중부(62세), 1986년 혼인)

V. 결 론

본 연구는 종가 혼례를 통하여 전통혼례문화의 요소를 찾고, 이를 통해서 선조들의 생활문화의 발자취 중의 하나로써 이를 기록화하여, 생활문화사적 연구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루어졌다. 경북지역 종가의 사례조사를 통해

여 다음의 몇가지로 연구의 결론을 맺고자 한다.

첫째, 가문에 따라 혼인방법에는 차이가 있었으나 중매를 통한 혼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특징이며 이들의 중매는 대부분 집안 어른이 하셨는데 주로 조부님이 많이 하셨으며 시삼촌 시고모가 중매를 선 집안도 있었다. 일반 민가에서는 주로 증신아버로 불렸던 중매인이 소개를 많이 하였으나 종가는 철저한 집안끼리의 만남이었다. 특히 비슷한 가계(家格), 선조의 공통된 학통이나 연원 등을 근간으로 혼인이 이루어졌다. 종가의 경우 퇴계 이황의 학맥을 중심으로 누대에 걸쳐 혼인한 가문이 많았으며 집집마다 혼인이 잘 되는 가문, 혼인을 피하는 가문이 따로 존재하였다. 전주류씨의 경우 원혼(遠婚)을 많이 하였으며, 영천이씨의 경우 혼인을 피하는 성씨가 따로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길혼(吉婚)의 경험 이 있는 문중들 간에 통혼관계가 반복해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혼반(婚班)은 연줄혼을 낳게 된다. 본 연구에서 만난 대다수 중부들이 친가와 시가 간에 친족들이 서로 ‘오고 간’ 혼인을 통해 연결망이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주로 친가의 ‘고모’나 ‘사촌’이 같은 문중으로 시집을 오고 그들에 의해서 중매가 주선되기도 하였다. 풍산류씨 서애종가 중부는 친정이 ‘만석살림’을 하는 부유한 가문이었으나 시댁의 살림살이는 많이 어려웠다. 그러나 조부의 권고와 시집이 ‘종가’라는 이유로 혼인하였다.

또한 종가는 혼인시 궁합을 따로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가의 상황과 다른 것으로 파악되었다. 민가의 혼례문화를 연구한 Park의 연구에 의하면 혼인시 궁합을 보는 것은 당연했고 궁합이 좋지 않으면 혼인이 깨어지기도 했다[26]. 종가의 경우 궁합은 보지 않았고 여러 정황으로 가장 편한 날에 혼례일을 잡은 것이 특징적이었다.

둘째, 혼인시 오가는 납채서는 10가문 모두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전쟁, 댁건설로 인한 종가의 이사, 화재 등으로 인하여 납채서를 간직하고 있는 가문은 풍산류씨 서애종가, 전주류씨 정재종가, 영천이씨 농암종가 등의 3가문이었으며 혼서지와 사주단지 연결서 등이었다. 전주류씨 가문의 경우 흥선대원군이 쓴 현판과 사당안에 있던 수 많은 고서를 모두 도난당하는 등의 아픔을 겪었다. 종손이 도난당한 조상의 보물을 찾기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두고 2달을 찾아 다녔으나 찾지 못했다. 다행히 혼인과 관련된 유물은 중부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다.

셋째, 혼수, 예단, 예물은 10가문 중 9가문이 약소하게 주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1940~1950년대에 비해 1970~1980년대에 혼인한 경우는 혼수품이 다양화되기는 하였으나 사치스럽거나 호화롭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부가 예물로 가장 많이 받은 것은 치마 저고리인데 치마 저고리를 10벌까지 받은 가문도 있었다. 한편

신부가 해가는 혼수품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지 않았다. 신랑이 농과 화장대까지 준비한 것은 다른 지역에 비해 경북지역만의 혼례문화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단으로 빠질 수 없는 품목 중의 하나는 시어른 이부자리와 옷이었으며 특히 시아버지의 도포는 필수품 중에 하나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영천이씨의 경우 시댁의 사촌이 너무 많아 시댁 어른 외에도 일가친척들에게 예단을 해야 했으며 예단을 드린 인원이 사오십명은 족히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부가 받은 예물로는 금반지, 금비녀, 한복감이 가장 많았다. 대부분의 종가가 당시 어렵게 살았으므로 특별히 많은 예물을 해주지 못하였다. 하지만 시대가 변하여 1980년대에 혼인한 영천이씨 가문의 경우는 차마 지고리 및 화장품, 금반지, 다이아몬드, 양산, 가방 등 예물의 품목이 다양해짐을 알 수 있다.

넷째, 10가문 중 6가문은 전통혼례를 했으나 4가문은 신식혼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10가문 중 풍산류씨 서애종가와 영천이씨 농암종가 2가문만이 혼례를 하기 전 관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루마기에 갓을 쓰고 그의 집에서 치루었으며 일가친척들이 축하해 주러 오신 것으로 나타났다.

전통혼례를 한 6가문 중 대례는 모두 신부집에서 치루었으며 함은 혼례 당일 같이 오는데 하인이 짊어지고 신랑보다 먼저 도착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부집에서는 혼례식을 치를 준비로 바쁘기 때문에 함 받는 의식은 따로 하지 않았다.

한편 신식혼례를 한 진성이씨 가문의 종부는 한복에 면사포 고부신을 신고 예식장에서 혼례식을 치루었으며 이 때 입은 혼례복은 전통과 신식이 혼합된 형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식혼례를 한 영천이씨의 경우, 진성이씨 종부보다 혼인이 늦은 바 웨딩드레스를 입고 신식혼례를 하였으며 부모님의 뜻으로 친정집에서 첫날밤을 보내고 경주로 신혼여행을 떠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현구고례는 10가문 모두 올렸으며 경주최씨 종부의 경우는 가문에서 내려오는 폐백복과 족두리를 입고 폐백례를 올렸다. 폐백음식은 신행을 때 가지고 온 음식으로 준비하였으며 주로 대추, 유과, 밤, 소고기, 다식, 엿 등이었다.

폐백례의 범위는 모든 가문이 시부모에서부터 문중어른까지 한 분도 빠짐없이 올렸으며 폐백례를 올린 후 다음날 새 며느리는 사당폐백을 올렸다. 보통의 가문이 불천위이다 4대 봉사까지 모두 스무번을 절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석문안은 각 가문마다 기간이 달랐다. 적게는 하루에서부터 길게는 일년까지 한 가문도 있었다. 한편 상중에 혼례를 한 안동장씨 종부는 3년을 빈소에 상식을 올렸으며 비교적 최근에 혼인을 한 경주최씨 종부는 시댁에 가서 3일 지내는 동안 딱 하루 조석 문안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종손과 종부의 자제혼례는 2가문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가문이 신식혼례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문대대

로 전통을 지키며 살아온 종가에서조차도 전통혼례문화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점차 사라져가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종가의 변화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두드러지는 현상은 종가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를 들 수 있다. 이는 유교적 사상을 국시로 삼던 조선시대에서 개화기를 거치면서 일제문물과 서구식 문화가 유입되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힘입어 근대사회로 진입되어 빠른 산업화를 겪게 되면서 가치관이 크게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외래종교의 유입으로 인한 외래사상과 전통의 레간의 마찰과 갈등으로 야기된 변화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통혼례의 정신과 원형은 잔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종가 사람들의 의식의 변화로 많은 부분이 신식혼례와 희석되었지만 혼례의 마지막 절차인 폐백례 만큼은 집에서 치른 점, 혼인 시 오가던 납채의 절차를 여전히 행하고 있는 점 등에서 전통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곱째, 종손과 종부의 혼례문화에 대한 제안점은 주말에 행해지는 혼례날짜를 바로잡고 우리의 아름다운 미풍양속인 전통혼례를 많이 올렸으면 하는 점, 예식장 축의금 문화가 바뀌었으면 하는 점, 예단의 허례허식이 바뀌었으면 하는 점, 후손들이 자식을 많이 낳아 가문이 번성하였으면 하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오늘날처럼 시대는 급변하고 있지만 종가는 한국사회에서 전통문화를 수호하고 있는 가족공동체이면서 공적인 존재이기도 하다. 특히 과거에는 종가를 중심으로 각종 행사가 집중되었기 때문에 가문뿐만 아니라 지역 생활환경의 중심 역할을 하였으며 종가 중심의 생활문화는 의식주생활 및 가정의례를 통한 유형의 문화자원이 함께 공존하는 대표적인 생활문화자원이다. 특히 종가혼례는 우리의 전통적인 생활문화 중의 하나로 각 가문마다 내려오는 전통의 혼례풍속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형의 문화자산이라고 할 수 있다. 종가혼례에 대한 풍습을 보전하고 계승시키기 위해서는 학계의 관심과 연구뿐만 아니라, 종가의 후손, 관·학의 지속적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 우리의 아름다운 종가혼례를 이어가기 위해 전통문화알림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아진다. 현재 여러 지자체나 문화원에서 전통문화 알림의 교육이 진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홍보부족과 관심 부족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2000년 들어 국가정책으로 '한스타일' 사업을 시행하면서 한국을 대표하는 것으로 한글, 한식, 한복, 한옥, 한지, 한국음악 등이 지정되어 한국을 알리는 지킴이 노릇을 하고 있어 그나마 우리의 전통문화를 보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으므로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종가혼례문화에 대한 발굴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자가 조사대상으로 선정한 23가문 중에 10가문을 제외하고 13가문은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었는데, 이 중 6가문 이상이 종손과 종부가 연로한 경우였다. 현재 50~60대의 종부들은 거의 신식교육을 받은 신여성들로 전통혼례를 많이 접해 보지는 못했지만 가문에서 내려오는 것을 전해들은 경우가 많아 실제의 상황을 제대로 전하기에 부족한 경우가 많다. 물질만능주의로 야기되는 현대사회에서 역사의 한 페이지로 사라져 갈지도 모르는 종가의 노종손, 노종부가 돌아가시기 전에 혼례문화에 대한 사례조사를 하여 소중한 자료(구술 및 기록물)들을 보존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또한 생각 외로 종가에서 간직하고 있는 혼례유물은 많지 않았다. 각 가문에서 기탁하여 국학진흥원에서 펴낸 책자에도 고서, 고문서, 목판, 서화류 및 기타유물 등이 있었으나 혼례와 관련된 유물은 한 점도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문화의 하나인 혼례가 역사 속에서 가끔은 소홀시 또는 경원시 되어 왔다는 것을 반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현재 혼례와 관련된 유물들은 청혼서, 허혼서, 사주단지, 택일단지, 물목기, 홀기 등의 혼례서식, 혼서보, 연길보, 폐백보, 사주보 등의 보자기, 함, 채단, 부용향, 황낭 등의 납폐물, 봉치상, 전안상, 대례상, 시부모 폐백상, 신랑신부 큰상, 그리고 증인들의 구술 등이 있다. 이들 유형·무형의 자료들을 모두 수집하고 자료화하여 전통의 형식과 격식을 보존하고 기록하여 영구히 그 맥을 이어 나가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전통혼례 절차와 관련 자료들을 수집하여 기록물로 남기는 작업을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무조건 전통방식을 고수할 것이 아니라 전통혼례 예법을 신식혼례에 맞게 변형시켜 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셋째, 현대의 젊은이들은 전통혼례가 너무 복잡하고 까다로운 부분이 많다고 한다. 전통혼례의 의미와 절차를 살린 새로운 혼례문화콘텐츠를 만들기 위한 노력과 연구가 필요하다. 과도한 혼례비용을 줄이기 위해 공공시설을 혼례식장으로 적극 개방하도록 장려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생활공감형 관혼상제 실천 협의체’를 구성, 혼례가이드북 제작 보급 등의 홍보활동을 적극 펼쳐 나가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관혼상제 문화 개선에 공직자의 솔선수범이 중요하며 특히 장·차관, 광역단체장,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들이 호화 혼례식을 자율적으로 자제하여 혼례가 자신의 위신과 부의 상징으로 여기는 사회풍토를 바로 잡고 새로운 가정이 탄생하는 신성한 출발의 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신세대들은 혼례의 절차와 의미에 대해 사전 교육이 전혀 없이 혼인하다 보니 가정의 소중함을 잘 알지 못하고 쉽게 이혼하는 가정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신세대들에

게 혼례의 본래 의미를 고취시키고 혼례절차와 혼례관습을 제대로 알려주는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Ju는 전통혼례절차에 교육적 확대를 위해 중·고등학교의 기술가정 과목에서의 전통문화교육이나 대학의 교양과정 그리고 사회교육으로 진행되는 예비부부 교육 프로그램, 매스컴을 이용한 다양한 문화교육프로그램 구안 등을 제시한 바 있다[13].

전통혼례문화에 대한 교육은 전통혼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며 전통혼례방식으로 혼례를 원하는 신세대들이 쉽게 예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리라 본다.

본 연구에서는 조사를 위해 1차 선정된 종가의 종손과 종부의 사례를 모두 조사하지 못한 한계점이 있으며, 경북지역의 종가로 제한되어 있다. 경북지역의 종가의 혼례가 우리나라의 혼례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주고는 있지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혼례문화의 대표성을 가진 것으로 확대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References

1. Ahn, H. S. (2010). A study on a change in wedding custom since industrialization of Korean society: Centering on the 1960s-2000s.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4(3), 87-108.
2. Choe, B. Y. (1999). *A study on a wedding view seen through Garyeseo*.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3. Folklore Academic Data Series. (2001). *Ex. Customary formalities of a family · wedding1*. Seoul: Teo Urimadang Publishing Group.
4. Folklore Academic Data Series. (2001). *Ex. Gwanhonsangje 3*. Seoul: Teo Urimadang Publishing Group.
5. Gang, H. J. (2007). *A study on Jongbu of Korean society in the modern and present tim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gang University, Seoul, Korea.
6. Gang, J. R. (2001). *Korea's social change and wedding cultural change: Centering on the 1940s-1990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7. Hong, N. Y., Lee E. J., & Park S. H. (2002). A study on a change in Korea's wedding culture of the

- 20th century -Centering on cases of regions in Seoul and Gyeongsang-do Province-.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0(11), 141-156.
8. Hwang, G. A. (1994). *A study on a change in Haengrye of wedd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ungshin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9. Hwang, G. A., & Lee G. P. (1994). A study on a change in wedding.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12(2), 163-174.
 10. Jang, C. S. (1984). *Gwanhonsangje (the four ceremonial occasions of coming of age, wedding, funeral, and ancestral rites) in Korea's traditional society*. Seoul: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1. Jang, C. S. (1995). *History of social custom in Seoul*. Seoul: The Institute of Seoul Studies attached to University of Seoul.
 12. Jang, C. S. (1995). *Korea's Gwanhonsangje*. Seoul: Jipmoondang Co.Ltd.
 13. Ju, Y. A. (2010). A study on work for developmental succession to Korea's traditional wedding. *The 14th regular general meeting and the great autumn academic conference collection for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8-21.
 14. Kim, I. O. (2011). *Korea's marriage culture*. Seoul: Gusang Publishing Group.
 15. Kim, I. O., & Ryu, M. H. (2007). Information on wedding service and consumers' needs for wedding expert. *Home Economics Research Journal*, 45(9), 75-87.
 16. Kim, J. H. (2003). A consideration of social history on wedding ceremony and marriage expenses in the second half-year of the Japanese Empire. *Family & Culture* 15(3), 87-110, 159-160.
 17. Kim, M. Y. (2007). A study on a change in ancestral ritual formalities and continuation in identity.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Historical folklore* 25, 271-300.
 18. Kim, M. Y. (2007). *Rightly knowing Andong culture*. Andong: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19. Korean Studies Advancement Center. (2008). *Culture of the main family, which links a vein of tradition*. Andong: Yeongnamsa Publishing Group.
 20. Lee, B. Y. (1995). A transition in Korea's modern history and a change in marriage system. *Ewha Historical Research*, 23 · 24 Hapjip, 39-54.
 21. Lee, G. J. (1999). A study on a change in our country's wedding · ancestral ritual since the restoration of independence. *Korean Family Welfare Studies* 4, 153-187.
 22. Lee, G. P. (1982). *A study on Korean people's value system seen through the customary formalities of a famil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23. Lee, G. P., & Choe, B. Y. (2000). The historical study on wedding in The Literatures of the proprieties of a family in the latter of Cho-sun Dynasty: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the early 20th century.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48, 177-191.
 24. Lee, S. W. (2008). *Searching for mystery in 1000 years*. Seoul: Blue History Publishing Group.
 25. National Cultural Properties Research Institute. (2005). *Ancestral ritual formalities and food of the main family*. Seoul: Gimmyoung Publishers, Inc.
 26. Park, D. C. (2006). *A study on continuance and change in wedding culture of Cheongun village*. Unpublished master's thesis, Andong National University, Gyeongbuk, Korea.
 27. Park, H. I. (1987). *A consideration of family history on Korea's traditional wedding*.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Seoul, Korea.
 28. Park, H. I. (1988). *A study on Korea's traditional wedding -Centering on Matrimonial Customs of Seoryubuga*. Seoul: Institute of Korean Culture Studies Korea University.
 29. Park, H. I. (1991). *Continuity and discontinuation in Korea's traditional wedding*. Capitalist market economy and marriage. Another culture.
 30. Seo, R. N., & Yu, M. U. (2003). A case study on costume culture of the main family for developing the field learning program of the living culture in the main family for adolescents: Targeting the main families in Hampyeong of Jeonnam. *Costume Culture Research* 11(5), 753-766.

접 수 일	2012년 3월	14일
심사시작일	2012년 6월	8일
게재확정일	2012년 7월	23일